

2018년 11월 1일, 제주시 이호2동 오도마을복지회관, 이효순 조사.

제보자1: 김상철(남, 1933년생, 제주시 이호2동)

- 제주시 이호2동에서 태어나서 85년째 거주하고 있다.

제보자2: 고영수(남, 1940년생, 제주시 이호2동)

- 제주시 이호2동에서 태어나서 78년째 거주하고 있다.

• 줄거리: 양반 동네 오도통에서 하마하지 않고 가는 스님에게 양훈장이 혼을 내자 스님이 복수할 마음으로 마을 지형이 배와 같은 것을 보고 배의 키 역할을 하는 궤에깃동산의 큰 돌을 없애야 마을이 잘 된다고 했다.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그 돌을 무너뜨리자 그 속에서 비둘기가 세 마리가 나와 조천, 김녕, 와흘로 날아갔다. 비둘기가 날아간 그곳에서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.

[제보자1] 오늘 같으면 동산. 궤에깃동산 그다가 우리 그 오도통이 배 형치인데 그게 키. 배를 움직이는 키는데. 어떤 분은 그 저 보따리 장수렌도 허고 스님이렌도 허는 디. 양훈장이렌 헌 분이 말 탄 채 뎅기는 것도 못 타게 허는디. 인사도 안허영 넘어가니까 막 욕하니까. 분풀이한다고 헤서 허는데 ‘이 마을에 발전이 되젠 허문 돌을 무너뜨려야 헌덴.’ 그게 키인데 키를 없애부는 거지.

그 돌을 무너트려 부니까 그다서 비둘기가 날아가는데 조천갓다 하거든. 그래서 조천리에 많은 인사들이 나왔다.

[제보자2] 하나는 조천, 하나는 김녕, 하나는 와흘 세 개가 비둘기가 나왔젠.

[제보자1] 지금도 공사허문서 다 부숴 불고 헤도 나머지 돌이 가장 큰 돌이 지금도 거기 있어요.

[조사자] 궤에깃동산에 영 돌 세워진 거.

[제보자1] 묻혀 잊어. 아주 커 납작하게. 그러니까 전설이라는 게 뭐 전설도 아무리 전설이라고 헤도 끄트머리 없는 전설은 없거든.

[제보자2] 그러니까 양훈장이 허는 분이니까 나가 들은 것은 봇짐장수가 걸영 지나가다가 양한테 혼낫거든.

그래서 어떻허영 양훈장을 조지고 허는가 허영 삼사 년을 오도통 뎅기면서

뭔가 할 게 없는가 조사해가지고 뎅기당 보니까 넓적한 돌판대기 잊고 높은 동산에 문제일 거 같다 헤가지고 양훈장 막 꼬드견 저기 동산에 큰 돌이 있는데 이걸 없애 불어야 동네가 잘 됨엔 막 꼬셔 부니까 양훈장은 동네 청년들 동원시키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언. 넓은 돌을 치와 불엇거든.

그것이 배에는 키 역할을 허는, 동네를 운영하는데 그 식으로. 돌을 밀엉 보니까 비둘기 세 마리가 나와서 하나는 조천, 하나는 김녕, 하나는 와흘 갔다. 이런 이야기를 들었주기.

나도 저번에 회장님의 이야기해가지고 다시 한번 옛날 책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잇더라고 들은 풍월이주마는.

- 핵심어: 궤에깃동산, 스님, 양훈장, 선비촌, 비둘기, 오도록, 키, 조천, 배, 김녕, 와흘, 봇짐 장수